

대학서도 참선명상 '열기'

서강대 교양체육에 '위빠사나'... 수강신청 30분만에 마감

불교수행법 위빠사나 강좌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정규과목에 채택됐다.

서강대학교(총장 이상일)는 위빠사나(중도선)를 9월 2학기부터 '정신건강과 참선명상'이란 교과명으로 2학점짜리 '교양체육' 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이는 사찰이나 기업체 연수교육, 정신문헌원, 문화센터 등에서 인기리에 강좌가 개설되는 열기가 대학교로 확산, 관심을 끌고있다. 더구나 학생들의 수강열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목 강의를 맡은 정동수교수(서강대 영문과)는 "영국유학 때 미국인 스매드슨에게 2년동안 사사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호흡법과 좌선 및 명상 등을 실기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특히 "선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편안한 자세라

야 된다"며 "이 수련이 습관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참선명상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서강대 최희남교수(교양체육)는 "당초 이 과목이 학생들에게 생소해 수강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며 "수강신청 30분만에 마감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고 학생들의 참선명상 열기에 놀라워 했다.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김지원(독문과 3년) 학생은 "취업준비로 인해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위빠사나 수련을 하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위빠사나는 부처님께서 8선정을 뛰어넘어 견성해탈에 이른 중도적 명상 수행법으로 핵심은 사념처관(四念處觀)에 있다. 사념처관이란 몸, 감각, 마음, 법 등이 네가지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신관(身觀), 수관(受觀),

심관(心觀), 법관(法觀)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위빠사나는 갖가지 교양강좌와 책을 통해 대중적으로 다가가왔다.

특히 기업체의 호응이 높아 삼성그룹은 거혜스님 강의를 담은 사원교육용비디오까지 제작 배포

하기도 했다. 또한 김열관씨의 저서 <위빠사나 1, 2>는 사찰에서 수행교재로 인기리에 활용되고, 김정민씨의 저서 <마음다스리는 법>(동지)은 7만권이 판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김주일 기자>

석왕사 '왕생극락전' 15일 개관

임종부터 납골까지 장례서비스 실시

부친 석왕사(주지 영담)는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경내에 종합 장례법당 왕생극락전을 15일 개관한다.

건전한 불교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1백평규모의 왕생극락전은 임종법당 안락정토, 빈소 도솔천궁 2개소, 납골당 영묘각, 영안실 왕생당, 장의용품판매소, 사무국을 갖추고 임종부터 납골까지 최소의 비용으로 종합 장례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임종법당 안락정토는 임

종전 부처님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임종전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24시간 응급차가 출동하여 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지 영담스님은 "99년 이후 25년간 한시적인 매장을 원할 경우 별도의 가족묘지를 무료로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며 "2천년 경 2~3만기 수용규모의 대규모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032)6673-404

뉴스 & 뉴스

백천사 사경·사불대회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스님)는 21일 김교각스님 기념관 개관기념으로 사경·사불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동림동문회(회장 성용스님) 주최로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반야심경> 사경과 '지장왕보살' 그리기 경연대회를 열어 시상할 예정이다.

클래식음악과 가방등 푸짐한 경품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자들의 예도 지장보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346)577-6433

영산법화사에 또 화재

서울 혜화동 영산법화사(주지 행산)에 5일 새벽 2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지하 1층 서고를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를 처음 목격한 천우스님에 따르면 "잠을 자던 중 행인이 창문을 두드리며 불이 났다고 소리쳐 나와보니 1층에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했다. 또 주지 행산스님은 "누군가 지근거리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정촌스님(원주)의 1명이 연기에 질식,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영산법화사는 91년 3층 법당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청소년 출입금지 4곳 요청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은 8일 인천시에 인천 주안 카페골목, 청천동 천천극장 부근, 제물포 뒷골, 부평역 진신미에식당 뒷쪽 등 4곳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 심의결과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지정될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불광법회 창립 23주년 행사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철)는 12일 불광사 불광법회 창립 23주년 기념법회와 기념행사로 바리장터를 연다. 1부 기념행사는 불광회 초대회장 한담스님의 기념사와 에드워드 트립교수의 신앙발표가 있고 연예인 불자회의 축하공연이 있다. 2부 바리장터는 지역주민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먹거리 볼거리 등이 마련된다.

도안사 청소년심포지엄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는 5일 서울 포교단 정광사에서 반야바라밀결사 보현도량 창립 5주년 불축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세기 불교청소년 육성·교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노승대(에밀레박물관 학예연구위원) 조달현(청소년교화연합회 사무국장) 이인숙(코카리유치원장)씨 등이 참여해 '불교청소년수련원의 특성과 방향' '불교청소년의 육성의 바람' 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교회장로 불교비방 책발간 '물의'

서울역광장서 배포...잇단 훼손 대책 절실

대전중앙성결교회가 8월 24일 성철스님의 법어를 펴내는 내용을 배포한 전단지가 현지 교회 장로가 제작한 책자에서 인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신타파운동본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소책자 <이판사판>(김인근장로 저, 도서출판 더불어)이 바로 그것. 이 책자의 내용 가운데 성철스님의 법어를 비하하는 내용이 대전중앙성결교회가 배포한 전단지와 똑같기 때문이다. 대전성결교회측이 9월 13일 작성한 '사과문'을 살펴보면 인용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사과문에 따르면 "기독교계에서는 서울등 각지에서 이미 작성 사용된 내용을 확인없이 전단지 일부분에 대전 중앙 성결교회명칭을 삽입해 배포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책자 <이판사판>에서도 전국 교회 목사에게 무료로 보낸다는



말로만 종교화합

미신타파운동 본부는 6일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교를 향해 전단지 <이판사판>을 배포했다.

연화어린이집 개원

봉은사, 새싹포교 나서 봉은사(주지 무상)가 어린이집을 통한 강남지역 새싹포교 포교에 나섰다. 봉은사는 2일 강남구 논현동에 연화어린이집을 개원한데 이어 12일 도곡동에 선우어린이집을 개원할 방침이다. 연화어린이집은 8개반 1백48명이 입학하며, 선우어린이집은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신홍사 통일대불 25일 '점안'

전몰군경 영가천도도

설악산 신홍사(주지 도후) 통일대불 점안대법회가 25일 오전 11시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된다.

지난 87년에 착공해 11년만에 완성된 통일대불은 좌대 높이 14.6미터에 좌대 높이 4.3미터, 좌대 직경 13미터 광대 높이 17.5미터의 초대형 청동불상이다. 신홍사 주지 도후스님은 통일대불

의 점안에 앞서 "11년간 전 국민의 통일열망을 담아 조성한 통일대불의 점안은 민족통일의 서광을 이 국토에 비추는 큰 불사"라며 "후진선에 인접한 신홍사는 앞으로 통일기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명실상부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안법회는 점안 법요식에 이어 호국전몰군경및 산악인 영가천도식과 연등 점등식으로 진행된다.

성철스님 사리탑 해인사 '내홍'

상림회 "백지화하라" - 문도회 "이해부족이다"

해인사가 성철스님 사리탑건립과 관련 내용을 겪고 있다. 소장 스님들로 구성된 상림회측의 "1천여평을 차지하는 호화사리탑 건립은 청정가공을 왜곡하는 처사"라는 주장에 대해 성철스님문도회측은 "사실과 전혀무관하다"며 "사리탑건립에 대한 물이해가 아니면 비난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상림회(공동종의 원화 항적 여연)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주문과 1백미터 거리에 1천여평의 호화사리탑을 조성하는 것은 일부 문도들의 상업주의적 발상

때문"이라며 "성철스님 대행사리탑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해인사 경내지에 약 3만여기의 유골을 안치할 납골당 건립도 전면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철스님문도회는 8일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성철스님의 사리탑 부지는 1백62평으로 마치 1천여평의 호화사리탑을 건설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리탑을 단지 한개인의 소유나 한문종의 불사뿐만 생각하는 데서 나온 근시안적이고 왜곡된 생각이다"고 밝혔다.

월드컵 출전 축구 예선에서 공이 골대 망 안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온국민은 하늘을 흔들듯 열광하며 하나가 됐다.

경기가 벌어지는 90분 동안 국민들은 진한 동포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에 이어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을 눌렀을 때는 한국인이 라는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꼭집에 표현할 수 없는 애국심이 절로 생겼다. 그래서 스포츠는 국민화합과 단결을 촉진시키는 국민적 청량제이다.

연일 국민들은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을 찬양했고 신문 방송들도 각광을 보냈다. 어두운 정치현실과 경기침체 속에서 실마를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축구예선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목의 티'가 있다. 그것은 축구팀을 대표하는 차범근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를 공식멘트로 반드시 짚고있는 것.



목의 티

위영란 <취재1부 부장>

그의 개인적인 종교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도 아닌데 그가 쌓은 공로나 실력이 삭감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할렐루야 팀'과 같은 특정단체의 감독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다만 국민적인 정서를 한 생각 더 됐다

면하는 바람이 있다. 국가대표팀은 굳이 분류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특히 감독은 팀의 대표성에 비추어 더욱 공적인 위치이다. 국민적 열광이 극에 달한 경기종료 직후 아무리 '소감'이라 할 지라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주님..." 운운하는 것은 활나의 그 순간 또다른 국민적 위화감을

'주님께 감사' 하는 국가대표팀

그의 개인적인 종교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도 아닌데 그가 쌓은 공로나 실력이 삭감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할렐루야 팀'과 같은 특정단체의 감독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다만 국민적인 정서를 한 생각 더 됐다

정치는 문화 예술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국민적 일치감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고문: 박갑철 유인현 문영선 박동례 김영기 최병순
 자문: 조돈오 김창식 자비행 한대수 현경진 김주혁
 김주욱 박영호 오남애 성태진 이종선 김영식
 현관음행

신도회장: 박도화 보살
 신도부회장: 김성룡 이봉춘 감로행 이갑순
 신도총무: 정삼순 보살
 신도포교: 정운채 김복순 석영희 김연순
 신도사회: 주희정 유승자
 신도행사담당: 한문규 이영출
 신도청년회장: 이상기 부회장: 정경조 정계순
 신도봉사담당: 김정순 양양덕 최동분

비구니 백시범

心氣道 禪武氣空會
 六神通 道通會 院長 泰日法師 合掌
 大韓佛教藥師禪院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직통)02-821-6622 야)923-3110 휴)017-236-311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뱃살이 굵고 딱딱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편이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김철(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통,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안 좋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반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 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라는 제물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자 용이 없을 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 부터 피부가 고아졌나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혈액이 잘 돌고 있어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 시한반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학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